

광주대, 장기 근속자 공로패 수여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지난 21일 대학 행정관에서 호심학원 창설 44주년 광주대학교 개교 34주년 기념 장기 근속자 공로패 수여식을 가졌다. <광주대 제공>

조대부고 총동창회장 이민수 동문 추대



조대부고 총동창회(회장 김성호)는 지난 21일 라마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총동창회장에 이민수 동문을 추대했다. <조대부고 총동창회 제공>

산단공, 안전사고 예방 민·관 합동훈련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2일 여수산업단지의 석유화학부두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모의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산업단지공단 제공>

광주지법 무등봉사단 '사랑의 식당' 배식



광주지법(법원장 김주현) 무등봉사단원 20여명은 22일 광주 남구 서동 '사랑의 식당'을 찾아 독거노인, 노숙자, 실직자 등을 위해 배식 봉사를 했다. <광주지법 제공>

**“트라우마 극복 위해
아픔의 근원 마주하고
사회적 치료 병행해야”**



정혜신 마인드프리즘 대표 조선태 특강

심리상담 강요 아닌 공감·위로를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조선태 대표가 서석출 대강당에서 ‘내 마음에 물어라’는 주제로 청중을 만난 정혜신(여·50) 마인드프리즘 대표는 트라우마가 지닌 위험성을 언급하며 치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선태 대표가 창의적 문화리더 양성을 위해 개설한 ‘문화초대석’에 초빙된 정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피해가족들을 만나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산과 진도를 오가며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는 그녀는 유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감안하면 심리적인 상담을 받는 것조차도 힘겨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국가가 위로해준다는 명분으로 유가족들에게 안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동병상련을 겪은 가족들이 우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희생되고 한두 명만 남은 학급의 학생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심리상담을 강요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진상을 모두 밝힌 것처럼 책임자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 대표는 세월호 참사가 한국전쟁처럼 많은 국민에게 심리적 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치유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 사회가 유가족들의 심리적 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심리상담 전문가가 아닙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가족들만이 고통의 크기를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기에 유가족들끼리 만나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이러한 자발적인 모임을 지속하면서 순차적으로 치유를 시작해야 합니다. 동시에 유가족들 주도하에 이번 사고에 책임 있는 이들을 명백히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심리적인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제대로 치유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일생을 파괴할 만큼 커다란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라우마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의식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아픈 기억을 마주하는 게 두려워 회피할 경우 ‘심리적 불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산 단원고에서 이사를 하거나 전학을 가는 학생들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라우마는 잊고 싶다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잊으려고 발버둥칠수록 오히려 상처는 깊어지고 평생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스럽겠지만 본인이 겪은 아픔의 근원을 대면하고 서서히 치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고통에 무뎠어지고, 감정이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이 한국전쟁이나 5·18민주화운동 등을 겪으면서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과정이 부족했던 것이 지금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등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물론 국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개인들을 위해 사회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양세열기자hot@kwangju.co.kr

이윤수 ‘바독사회’ 문학춘추 수필상

문학춘추 85회 수필부문 작품상에 이윤수(72) 씨가 당선됐다. 수상작은 ‘바독사회’.
목포 출생으로 43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늦은 나이에도 수필로 등단해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제목이 암시하듯 ‘바독사회’는 바둑판을 앞에 두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심상을 그린 것으로, 일상에서의 관조의 중요성을 다담하게 풀어놓는다.
그는 “문학의 서투른 길을 걸어오다 갑자기 문단에 발을 내딛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진흙 속에 들어 있는 보배를 찾는 심정으로 글쓰기를 갈고 닦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 수필가는 목포사범학교와 전남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광주 진남·정암초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 황조근정훈장과 경향사도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 ‘고봉의 교학사상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한편 시상식은 24일 오후 2시 광주 동구문화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기자skzsp@kwangju.co.kr



순천산재병원 정인숙씨 ‘나이팅게일상’

근로복지공단은 제23회 산재병원 나이팅게일상수상자로 순천산재병원 정인숙(46) 간호사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나이팅게일상은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참 간호를 실천하는 간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전국 산재병원 10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00여명 중 추천을 받아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 간호사는 지난 1991년 4월 순천시 조례동 순천산재병원에 입사해 정형외과, 일반내과병동, 응급실, 건강관리센터, 진폐병동 등에서 근무했다. 그녀는 표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간호 업무 개선에도 노력했고 병동 교육담당자로 간호의 질을 높이는 데도 애써왔다. 또한 간호봉사대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매일 독거 노인과 불우 이웃을 찾아 집안정소를 돕고 건강상담과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

목포대, 한비아 초청 특강

목포대학교(총장 최일) 교육혁신개발원은 최근 박물관 대강당에서 ‘질 가르치는 대학 ACE사업’의 일환으로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한비아(여·57)교장 강연을 열었다. <사진>
이날 강연회는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됐으며 교직원 및 재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한비아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글로벌 세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만 머물지 말고 세계시민으로 우리의 무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가슴 뛰는 삶을 사는 방법을 자신의 체험담을 통해 소개했다.
이날 강연을 청강한 김선(국문 4) 학생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값진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한비아처럼 해외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나를 넘어



우리를 위한 삶을 사는 값진 체험을 가져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비아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은 홍익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타대학교 터프츠대학 플레처스쿨에서 각각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여행가이자 국제 구호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현재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이자 UN 중앙간담대응기금 자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바퀴 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그건 사랑이었네’ 등이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is0533@



현대차 광주·전남본부, 집 수리 봉사

2012년부터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드림투게더 멘토링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유근혁)와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민호)가 지난 20일과 22일 드림투게더 멘토링 멘티의 집을 방문해 ‘사랑의 집 수리’ 활동을 펼쳤다. <사진>
현대차 전남본부는 20일 강진군 칠랑면에 위치한 드림투게더 멘티의 집을 찾아 곰팡이로 누룩해진 집안 내부 도배 및 장판 교체 작업과 전등교체 작업, 주변 환경정리를 실시했으며 광주본부는 22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멘티의 집에서 부엌 천장 수리공사, 외벽 페인트 칠 등을 진행한 뒤 공부방 책상을 증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정찬우(주)광성관광대표)·김옥례씨 장남 기원군 서현기(광주송일고등학교장)·김정화(광주송일중학교) 장녀 진리양 =24일(토) 오전 11시 라페스타 4층 디아망홀(구 메리어트).
▲윤옥윤(조대 강진군(의)장) 장남 훈(DYLNJ경영지원과장) 장녀 박용길씨 장녀 소영양 =24일(토) 낮 12시 알펜시아웨딩컨벤션2층.
▲김상근(광산서 수완지구대장)·이성자씨 차남 진우군(조대병원 전공의) 최종열·이민자씨 장녀 하영(전대병원 전공의) 양 =24일(토) 낮 12시40분 라페스타 2층 엘루체홀.
▲김양중씨 장남 철근 김순수(순천 법무사)씨 막내 남형양 =25일(일) 오전 11시 30분 순천동부웨딩홀 1층 사랑홀 010-3641-2816.

동창회

- ▲영광 묘량중영초등학교 제25회 동창

- 회(회장 이성심) =24일(토) 오전 10시 모교 운동장 010-8877-6125.
▲송원고 총동창회(회장 황명성) 열린 음악회 =6월 3일(화) 오후 7시 송원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 062-384=7447.

宗친회

-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서구본원 정기총회 =23일(금) 오전 11시 도지연 회의실 3층 010-5060-4661.

알림

-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 =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로자선봉사 =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 =미혼부모

-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 =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차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습관성도박(경마, 주사,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오락 등)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 =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 = 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 = 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

- 보호시설 = 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 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취사, 청소,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오치 배드민턴 클럽 회원 = 오후 7시 30분~10시 30분까지 우산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모집

- ▲길라잡이 프로그램 = (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 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취사, 청소,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오치 배드민턴 클럽 회원 = 오후 7시 30분~10시 30분까지 우산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 호스트 =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모집 = 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솔,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 상담 062-351-1206.
부음
▲김방식씨 별세 김중성·병우씨 모친 상 = 발인 23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최영구씨 별세 준호·근호·은영씨 부친상 = 발인 23일(금)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101호 故朴민찬 남(72세) 子/子婦: 박철규, 황영/심영미 ·호 실: 101호 ·장 지: 영락공원 ·발 인: 5월 24일 ·연락처: 227-4355	102호 故한성희 남(89세) 子/子婦: 이종훈/황정미, 종영/여숙자 ·호 실: 102호 ·장 지: 영락공원 ·발 인: 5월 24일 ·연락처: 227-4386
201호 故정삼태 남(86세) 子/子婦: 윤영민, 황찬/정은숙 ·호 실: 201호 ·장 지: 영락공원 ·발 인: 5월 23일 ·연락처: 227-4381	402호 故김성근 남(82세) 子/子婦: 최병창/이미연, 발우/김미경 ·호 실: 402호 ·장 지: 영락공원 ·발 인: 5월 23일 ·연락처: 227-4314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